

# “보고싶은 얼굴, 지원이가 왔다”

광주시립미술관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 ‘영원을 빛은, 권진규’展...오는 10월23일까지

## ‘지원의 얼굴’ 등 120여점...아카이브 50여점도 ‘테라코타’·‘건칠’ 등 제작과정 소개 공간도 눈길

‘이상과 영원을 추구한 고독한 예술가를 만나다.’

한국 근현대 조각 선구자 권진규 작가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 ‘영원을 빛은, 권진규’전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술 교과서 속 ‘지원의 얼굴’로 널리 알려진 권진규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주최로 마련한 기념전으로 권진규 생애 전반에 걸쳐 제작한 작품 12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1전시장 한복판에는 ‘지원’의 얼굴을 비롯해 ‘현옥’, ‘혜정’, ‘영희’ 등 그의 제자 또는 지인의 얼굴을 형상화한 흉상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옆에서 바라본 여인상들은 하나같이

목이 길고 앞을 향해 살짝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기하학적이지만 이상적으로 표현된 얼굴형과 비율은 작가가 추구하는 미의식이기도 하다.

자신의 얼굴을 본뜬 ‘자소상’ 작품들은 정면을 응시한 채로 턱을 약간 들어 올려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말년 작품 ‘가사를 걸친 자소상’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가사’는 불교에서 수행자가 보살로 가는 마지막 길에 착용하는 의상을 뜻한다. 자기 자신을 승려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상과 영원을 지향하는 시선, 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 이번 전시에선 말 머리를 형상화한 ‘마두’ 시리즈를 비롯해 말·소·양 등 여

러 종류의 동물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다양한 형상의 조각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가 주로 사용했던 기법인 ‘테라코타’와 ‘건칠’(乾漆)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작가는 점토를 구워 만드는 ‘테라코타’와 불상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옷칠 기법 ‘건칠’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갔다.

제2전시실로 올라가는 통로에서는 ‘노실’(爐室), 즉 화로가 있는 방으로 불리우는 ‘권진규 아틀리에’가 영상으로 소개된다.

서울 동선동에 자리잡고 있는 ‘권진규 아틀리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그의 생전 작품 활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2006년 그의 여동생인 권경숙 여사가 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해 관리·보존되고 있다.

2층 전시장에선 그의 말년 작업들이 주를 이룬다.

작고한 이중섭의 황소 작품을 오마주해 만든 테라코타 작품 ‘흰소’, 거룩한

이미지보다는 삼배의 거친 표면적 특성이 돋보이는 ‘십자가 위 그리스도’ 등 구조를 넘어서 내면을 형상화한 조각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작가가 구상한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케트(밀그림용 모형 조각상), 드로잉, 그가 자세히 보고 탐독했던 다양한 주제의 도서들, 그 위에 치밀하게 적어놓은 기록 등 50여점의 아카이브를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한국 근현대 조각을 개척해 온 권진규 작가는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대, 개인적 어려움과 소외감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예술가’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이상과 영원을 추구하면서 구도자적 자세로 치열하게 예술에 임했던 ‘조각가 권진규’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전시 기간 중 조각가 권진규의 삶과 예술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10월23일까지. /최명진기자



◀ 권진규작 ‘지원의 얼굴’ 리움 소장, ©(사)권진규기념사업회, 사진 박명래



▼ 권진규작 ‘흰소’, ©(사)권진규기념사업회, 서울시립미술관, 사진 박명래

## 생명의 도구로 나타낸 치유의 의미

백유 작가 초청전...10월30일까지 갤러리 바로

골프선수에서 사진작가로 전향한 후 조형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 출신 백유 작가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10월30일까지 광주 북구 신용동 갤러리 바로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등장한다.

작가는 청진기, 의사가운, 혈압기, 링거줄 등 생명체의 무질서함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속삭임과 움직임의 보여준다.

과거 장래가 촉망되는 프로골퍼였던 작가는 잘나가던 골퍼의 삶을 던지고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해체예술에 뛰어든다. 이는 직업적 압박감에서 비롯됐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매번 날아가는 공 속에 있는 자신은 다르다. 공은 매번 골퍼의 다른 이야기를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공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골퍼의 이야기가 아닌 좋은 성적이었다. 작가는 과감히 골퍼를 중단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척수시계와 동맥가운’

작가에게 치유란 병들어가는 생명이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치유의 공간인 병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이유다. 작가는 병원에 있는 각종 작은 도구와 의료 기구들을 해체하고 분해한 후 재조합하면서 치유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한다. /최명진기자

##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놀이마루’展...내달 8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즐거움 기억이 가득한 마루로 초대합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8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황연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놀이마루’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도내 여성신진작가 발굴 및 생애 첫 개인전 전시 지원을 위한 공모전 ‘여신 나르샤’의 일환으로, 최종 3인 여성 신진작가에 선정된 황연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황연 작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우울감과 공허감을 마주했다. 작가는 이러한 우울감을 어릴 적 사랑했던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했으며, 늦은 나이지만 수채화 교실에서 시작한 예술활동은 미술학과 편입이라는 용기를 갖게 했다.

작가에게 ‘마루’는 어린 시절 즐겁게 그림을 그리던 최고의 사적인 공간이자 이제는 꿈을 이루는 작업실이다.

작가는 “나의 즐거움 마루, 작업실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고 있다”며



‘치유’

“꿈을 잃어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작가의 놀이마루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준비돼 있으며, 전시 및 체험 후기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최명진기자

## 우리 가락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6일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6일 오후 3시 토요일상설공연에 서지원 대금산조와 서의철 판소리 무대를 선보인다. 국악인 김산옥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 무대는 서지원 씨의 ‘서용석류 대금산조’다.

남도 음악의 대가인 서용석이 한주환에게 전승받은 가락을 토대로 본인의 독창적 가락을 더해 지금의 산조를 완성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대금산조 중 가장 판소리 여법에 충실한 산조다. 극적인 표현과 시김새, 음악의 구성력에서 최고의 산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지는 무대는 소리꾼 서의철 씨의 수궁가 중 ‘토끼, 수궁 들어가서 용왕 속이는 대목부터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대목까지’다.

별주부의 땀에 속아 수궁으로 들어온 토끼가 용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임기응변을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대목을 서의철 씨의 구성진 소리로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소리꾼 서의철



대금 연주자 서지원

판소리 고법 전수자인 김명준 씨가 함께하며 전통문화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한다.

/최명진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